

# '해롭다' 인식변화...부지런 상징

## 병자년 쥐에 얽힌 이야기

병자년 쥐띠해가 밝았다. 고유한 우리 풍속에는 정월(正月)이 되면 이날을 쥐날이라 하여 농부들은 쥐를 없애기 위해 들로 나가서 논과 밭두렁을 태우는 쥐불놀이를 하는데 이것은 수확한 각종 곡식을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세계 각국에 분포하고 있는 쥐는 강한 번식력으로 형태 구조 서식장소가 다양하다. 쥐는 농작물을 손상시키고 병충해를 옮기는 등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해로운 동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현대에 접어들어 실용용, 관상용으로 이용되기도 하고, 모피의 재료로 사용되기도 한다.

바라문에 대한 이야기다. 왕사상에 한 바라문이 살고 있었다. 그는 어느날 자신의 새옷을 쥐가 잡아 먹은 것을 발견하고 불길한 징조라 여겨 내다버리려 했다. 그런데 마침 묘지를 지나던 부처님이 그 바라문이 깨달음의 근기가 무르익었음을 알고, 그를 제도하고자 그 옷을 건네 받았다. 두려움에 질린 바라문이 부처님에게 그 옷의 불길한 징조를 고하며 만류하자 부처님은 그에게 말했다.

"바라문아! 우리는 출가한 사람이다. 우리에게는 묘지나 거리, 또는 쓰레기장에 버려진 옷들이 알맞다. 그대는 이번 생 뿐만 아니라 전생에도



숨은그림 찾아보세요

중·연꽃·경전·목탁·주름등·향로·촛불·귀자·발우

## 실험용 이용...생명의학 발달 기여 부처님 본생담 "불길하게 생각말라"

또한 우리나라 속담과 민담에도 쥐와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이 전래하고 있다. '쥐구멍에도 별빛 날 있다' 하여 불행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행운이 찾아온다는 뜻으로 쓰이기도 하며, 도저히 되지 않을 일을 시킨다는 뜻의 '쥐구멍으로 소뿔라 살고 있다' 그는 미신을 깊이 믿었는데 웃으로 길흉을 점치고 있었다. 어느날 바라문이 옷장에 넣어둔 새옷을 입으려고 보니 쥐가 잡아먹어 입을 수 없을 정도로 상해 있었다. 쥐가 잡아먹은 옷을 살펴보면 바라문은 "큰일이다. 점괘가 좋지 않아요! 이 옷을 이대로 집에 두었다가는 반드시 우리 집에 불길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아무도 이 옷을 만질 수 없도록 멀리 내다 버려라!"라고 아들에게 명령했다.

같은 그릇된 견해에 빠져 있었다" 라고 말하자 바라문이 부처님에게 그 전생이야기를 들려달라고 간청했다. 그러자 부처님은 바라문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옛날 마가다국 라자카하에 신분이 높은 바라문계급의 남자가 살고 있었다. 그는 미신을 깊이 믿었는데 웃으로 길흉을 점치고 있었다. 어느날 바라문이 옷장에 넣어둔 새옷을 입으려고 보니 쥐가 잡아먹어 입을 수 없을 정도로 상해 있었다. 쥐가 잡아먹은 옷을 살펴보면 바라문은 "큰일이다. 점괘가 좋지 않아요! 이 옷을 이대로 집에 두었다가는 반드시 우리 집에 불길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아무도 이 옷을 만질 수 없도록 멀리 내다 버려라!"라고 아들에게 명령했다.

바라문이 옷을 버리자 옆에 있던 수행자가 그 옷을 주었다. 수행자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들은 그런 것에 집착하고 있지 않습니다. 올바른 가르침을 듣고 그것을 따르는 자에게는 길흉따위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집착하고 있으면 정말로 중요한 것을 놓치게 마련이요, 미혹의 어둠속으로

던져져 그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진리의 빛을 받으며 미혹의 어둠을 깨뜨리는 일야말로 진정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깨닫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지요."

부처님은 이렇게 바라문의 전생에 대해 말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계승을 읊었다.

"길흉의 징조나 꿈, 관상의 생각들에

서 벗어난 이는 이미 미신의 허물을 넘어 더불어 일어나는 번뇌를 모두 항복받고 다시는 나고 죽는 윤회의 몸을 받지 않는다." 부처님은 계승으로 설법하고 나서 다시 말했다. "그대의 그 두 사람은 지금의 이 부자요, 그 수행자는 지금의 나였다." (자타가 87)

이은지 기자

## '코미디 전문제작사' 차릴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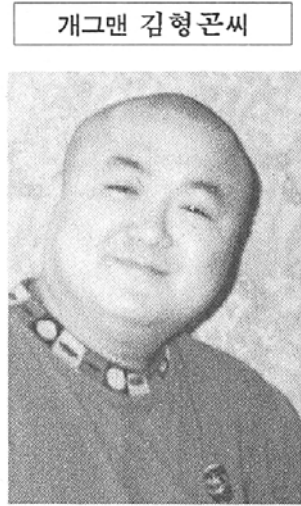
"올해는 코미디에 관한 모든 것을 연구, 뮤지컬 등으로 담아낼 수 있는 '코미디 전문제작사'를 만들 계획입니다."

오는 8일까지 예술의 전당 토월극장에서 공연되는 뮤지컬 '왕과 나'의 연습으로 한창 바쁜 김형곤씨의 새해설계다.

뮤지컬 공연이 두번째라는 김씨는 이번 공연에서 태극 삼왕국 프라미타와 역할을 위해 구랄 2일 첼보사에서 사발을 하고 석주 콘스님께 무례라는 범명을 받기도 했다.

"첼보사에서 머리도 깎고, 불교국가인 태극을 배경으로 하는 뮤지컬을 하게된 것도 불교와의 큰 인연이라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을 계기로 새삼 새뜻으로 새해에는 모든 일을 자비로운 마음으로 풀어나갈 생각입니다"라고 김형곤씨는 말했다.

김씨는 "이번 뮤지컬을 마치고 나서는 TV 출연도 더욱 활발히 해 질놀고 신선한 코미디로 안방에 웃음을 전할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개그맨 김형곤씨

## 올 대학졸업... "성숙된 연기 보일러"



탤런트 김민희씨

독수리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더욱 친근한 김민희씨에게 96년은 누구보다도 바쁜 한 해가 될 것 같다.

쥐띠 불자인 김씨가 대학졸업과 함께 본격적인 연기활동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는 2월 동국대 연극영화과를 졸업하게 됩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한 사람의 사회인으로서 더욱 성숙된 연기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굿모닝 배뱅이'라는 연극에서 집결의 삶을 살아온 슬집마담 배뱅이 역을 훌륭히 소화해 내 아역스타의 이미지를 벗고, 성인연기자로서의 대변신에 성공하기도 했다.

"어떤 역할이 주어지든지 간에 항상 공부하는 자세로 연기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하는 김민희씨는 올해가 '쥐띠'인 만큼 자신의 해로서 확고한 연기영역을 이뤄내겠다고 아무진 포부를 밝혔다.

(은)

쥐띠불자 새해설계

불기 2540 1996 丙子年

### 새해, 새날 - 닿는 곳마다 부처님 땅 도리에 하소서

<p>대한불교조계종</p> <p><b>호암사</b></p> <p>(아동복지 례비니)</p> <p>주 지 현 중</p> <p>대중 일동</p> <p>경북 상주시 이안면 지산리 293</p> <p>☎ (0582) 541-7863</p>	<p><b>정각사</b></p> <p>주 지 이 광 우</p> <p>신도회장 이원각성</p> <p>서울시 성북구 삼선동 1가 277-12</p> <p>☎ 742-1231</p>	<p><b>신어사</b></p> <p>주 지 상 운</p> <p>신도 일동</p> <p>경남 김해군 대동면 주동리 994</p> <p>☎ (0525) 31-6389</p>	<p><b>삼보사</b></p> <p>주 지 윤 지 원</p> <p>신도 회장 임 석 순</p> <p>거사협회장 홍 성 결</p> <p>연화회 회장 차 정 순</p> <p>서울시 은평구 역촌 1동</p> <p>☎ 352-6406</p>	<p>문화재 수리·단청기능 708호, 도공기능 821호</p> <p>명화·단청·불상조성</p> <p><b>한국불교미술원</b></p> <p>원 장 정 규 진</p> <p>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196</p> <p>☎ 730-8072 (야) 648-0930</p>
<p><b>(주)국보도자기</b></p> <p>(황금빛 도자기불상 조성업체)</p> <p>일천불, 삼천불, 일만불</p> <p>대표이사 권 영 천</p> <p>본사·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53 신안BD 301호</p> <p>공장·경기도 광주군 신흠면 정성리</p> <p>☎ 02-723-4260-1 / FAX: 02-723-4260</p>	<p><b>신 흥 사</b></p> <p>(청소년 수련원)</p> <p>주 지 오 성 일</p> <p>신도 일동</p> <p>경기도 화성군 서신면 상안리 산 42-1</p> <p>☎ (0339) 57-2695 / 3916</p>	<p><b>진 관 사</b></p> <p>주 지 진 관</p> <p>대중 일동</p> <p>신도 일동</p> <p>서울시 은평구 진관외동 1번지</p> <p>☎ 359-8410</p>	<p>대한불교 조계종</p> <p><b>성지 비슬산 유가사</b></p> <p>주 지 김 문 성</p> <p>대중 일동</p> <p>대구 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양2동 115번지</p> <p>☎ (053) 614-5115</p>	<p>재단법인 신학원</p> <p><b>여여선원</b></p> <p>원 장 혜 운</p> <p>신도 일동</p> <p>대구 광역시 달서구 송현1동 1982-4</p> <p>☎ (053) 622-0336, 629-4945 / FAX: 655-3825</p>
<p><b>서울 종로 대각사</b></p> <p>식기어래부속법 제88세 불성진중조사 청진도량</p> <p>조실경주지 부 주 지 노 선 선 총</p> <p>불심도문 무심보광 보 월 월남경운 각천청청</p> <p>서울시 종로구 대각사</p> <p>☎ 765-0972 / FAX: 742-2126</p>	<p><b>동산반야회·동산불교대학</b></p> <p>동산불교 전문 연구원</p> <p>회 장 김 재 일</p> <p>회원 일동</p> <p>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45</p> <p>☎ 732-1206</p>	<p><b>동명불원</b></p> <p>주 지 덕 천</p> <p>신도 일동</p> <p>서울시 송파구 풍납1동 496-3</p> <p>☎ 488-7027</p>	<p>대한불교 조계종</p> <p><b>신어산 은하사</b></p> <p>주 지 김 대 성</p> <p>금강회·금옥회·청년회</p> <p>신도 일동</p> <p>경남 김해시 삼방동 662</p> <p>☎ (0525) 37-0101-5</p>	<p><b>청 계 사</b></p> <p>신도 일동</p> <p>경기도 의왕시 청계동 산 11</p> <p>☎ (0343) 26-2348, 26-2670</p>